

우리보다 더 소중히 우리말을 다루는 외국사전

김치·온돌·막걸리 등... '고누'같은 잊혀진 우리말도 자세히 설명

이상섭

연세대 영문학과 교수 · 한국어사전편찬실장

중국 문인 임어당은 자기가 가장 애독하는 책이 《콘사이스 옥스포드 영어사전》이라고 한 적이 있다. 이 단권 사전은 필자 자신도 한때 감탄하면서 뒤적이던 사전이기도 하다. 널리 알려졌다시피 《옥스포드 영어사전》은 19세기 중엽에 편찬이 시작되어 70여년 동안 4대에 걸친 편집진의 연속적 노력 끝에 1928년에 완간된 세계에서 가장 잘된 사전으로 유명하며, 그 사전을 줄여서 《쇼티 옥스포드 영어사전》을 만들었고, 다시 이를 줄여서 만든 것이 위에 언급한 임어당의 애독서인 것이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임어당의 애독서를 다시금 더 줄여서 만든 것이 《포켓 옥스포드 영어사전》이다.

일본인들이 영어사전을 만들고 이를 《콘사이스 영어사전》이라 한 것은 바로 위의 옥스포드 사전에서 따온 것인데 어쩌다 그만 '콘사이스'란 말이 사전 자체를 뜻하는 말로 변했고(일인들의 많은 영어식 낱말들이 그런 와전에 의하여 생긴 것처럼), '포켓 사전'이라는 흔한 명칭도 옥스포드 사전에서 얻어온 것인데 이제는 우리까지도 스스로없이 쓰는 보통명사같이 되었다.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오른 우리 낱말

1989년에 《옥스포드 영어사전》은 20권으로 증보 개편되어 그 명예를 더 한층 높였다. 애초에 13권이었는데, 제2판은 20권으로 확장되었으니 거의 두배나 늘어난 셈이다. 출판과 거의 동시에 그 20권을 CD-ROM 한 장에 수록하고 그 방대한 내용을 여러 측면에서 알아볼 수 있는 갖가지 도구들을 고안했다. 이 전자사전이 20권 한 질보다 훨씬 값이 싸다. 이 전자사전을 이용하면 50여만개의 올림말 중 우리말에서 간 낱말들이 몇 개이며 어떻게 다루어졌는가를 글썽 몇 번 누르면 화면에 척 나타난다. 알아보니 우리 낱말 중에서 이 큰 영어사전에 올라 있는 낱말은 모두 13개이다. 이는 기대하지 않았던 숫자이다.

우리말이 영어라는 세계적인 큰 언어의 어휘를 13마디나 늘려주고 있다니 거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런데 일본어로부터는 343개나 제공받았다고 하는 정보에 접하면 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중국어와 인도어로부터도 물론 수백개씩 공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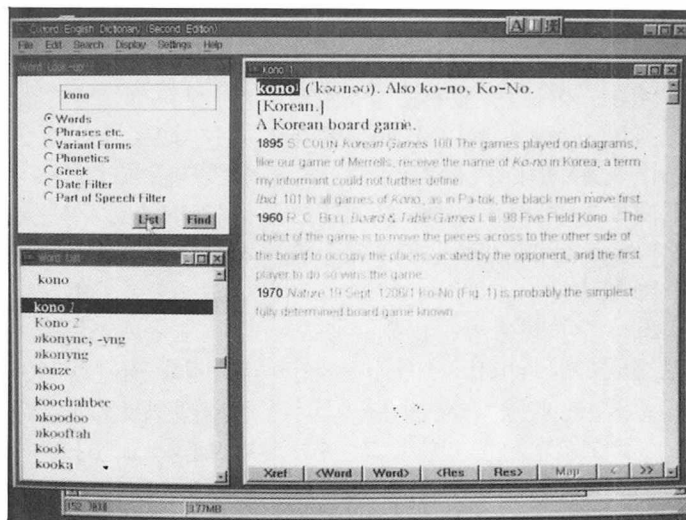
받았다. 해적떼로 시작한 앵글로 색슨족의 언어가 세계 각지로부터 낱말을 받아들여 세계 언어 중 가장 큰 어휘를 가진 영어가 된 것이다. 그들은 일단 받아들인 외래어를 자기네 식으로 편리하게 써서 결국 자기네 낱말로 만드는 기막힌 재주를 부려 말부자가 되었다.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올라 있는 13개의 우리 낱말은 무엇들이나 여러분이 짐작해보기 바란다. Korean은 당연하다. 각 나라·민족 이름의 영어식 표기는 다 올라 있으니, 이렇게 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민족이 영어 어휘 불리기에 빠짐 없이 참여했다. 여러분의 짐작 제1호인 kimchi가 빠질 수는 물론 없다. 혹시 최근 세계적 스포츠로 각광 받는 taekwondo가 올라 있음직 하다. 맞았다. 그리고는?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한때 kisaeng 관광이라는 것이 세계적 뉴스거리가 되었으니 올라 있을 듯. 역시 옳다. 그 다음부터는 짐작이 잘 안될 것이다. 북쪽 사람들은 juche가 올라 있어야 한다고 열을 올리겠지만 미제의 언어인 영어라 그것은 아직 안 올라 있고, bulgogi가 세계적 음식이니 올라 있지 않으면 사전이 틀렸다고 할 분이 있을지 모르나 아직 옥스포드 근처에서는 불고기를 잘 모르는 모양이다.

세계적 자랑거리인 우리의 hangul은 꼭 올라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과연 받아들여졌다. 나머지는 그냥 적기로 한다. kono, makkoli, myon, ondol, onmun, sijo, won, yangban 등이다. 이 가운데 막걸리, 온돌, 시조, 원(돈 단위), 양반은 오름직하나 행정단위인 '면'과 우리가 이제는 쓰지 않는 '언문'이 올라 있는 것이 다소 의외이고 '코노'는 도대체 알 수 없는 말이다. 뜻풀이를 보니 한국의 고유한 놀이로 장기나 바둑의 가장 원초적 형태라고 한다.

일찍이 1895년에 Culin이라는 사람이 'Korean Games'라는 책에서 이 놀이를 소개하면서 처음으로 kono라는 말을 쓴 이래, 가끔 세계의 판놀이(board game) 역사를 말할 때 우리는 다 잊다시피한 우리 고유의 kono를 언급한다는 것이다. 1970년 영국의 유명한 과학잡지 《Nature》에서도 놀이의 유래를 말하면서 kono를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잊었을지라도 세계 학계에서는 중요한

세계적인 사전
(옥스포드
영어사전)에는
우리의 낱말도
13개가 들어 있다.
kimchi, makkoli,
ondol 등과 함께
옛 놀이의 하나였던
'고누'라는 말도
그림과 함께
유래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사항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보니 이제 알겠다. 필자가 어렸을 때 땅바닥에 가로세로 네 줄씩 금을 긋고 '고누' (표준어로는 '고누')를 두지 않았던가! 그 아득한 옛 시절의 어린애 장난이 당당히 옥스포드 사전에 자리를 차지할 만큼 세계적인 귀중한 문화적 자산이었구나!

'분량' 늘리기 보다 정확한 설명 필요

《옥스포드 영어사전》은 어휘의 수가 많아 서만 커진 것이 아니라 한 낱말의 어원, 표기법과 발음의 변천, 최초 사용시기, 사용자, 사용처, 사용 용례를 추적하여 적었을 뿐 아니라 그 낱말의 그 후의 역사—그 의미, 용법의 변화를 역시 실제 용례와 그 용례의 저자와 출처와 시기를 밝히는 등 웬만한 낱말에 대해서는 그 뽁뽁히 인쇄된 쪽을 몇 장이나 들여 자세히 다루는 까닭에 커지고 커진 것이다.

우리 말에서 가져간 kono(고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전에서는 잘 알 수 없는 그림까지 합쳐 6줄의 설명으로 끝나지만(그림 빼면 4줄 될 듯) 《옥스포드 영어사전》에서는 1895년, 1960년, 1970년의 용례를 실어 개념을 확실하게 하는 데에 12 줄이나 들고 있다. 남들이 우리보다 우리 낱말(그들에게는 학술적 외래어)을 더 자세히 다루고 소중히 다룬다고 하는 수밖에 없다.

또 그들은 아직도 이 낱말을 학술적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는 거의 잊어버리고, 서양의 '체스'를 배우는 사람이 늘고 있다. 참고를 위해 밝히자면 우리말 사전에서 '체

스'는 아주 간단히 '서양식의 장기. 서양장기(영.chess)'라고 반 줄로 풀이되어 있다. 그리고는 '체스 판'의 그림을 넣었다. 그 이상 설명 안해도 알 사람은 다 알 거란 말인가? 도대체 '서양장기'가 무엇인가? 그래서 찾아보니 그냥 '체스'라고 해놓았다. 우리 사전들의 이름높은 '뽁뽁이 돌리기'의 한 실례이다. 우리의 고누를 주고 그들의 체스를 받아왔는데 손해 본 것은 어느 쪽인가?

영뽁하게도 '첵커'에 대해서는 '체스'보다 훨씬 자세히 풀이해 놓았다. 이 놀이는 미국에서는 '첵커즈(checkers)'라 하고 영국에서는 '드래프트스(draughts)'라고 하는 것이건만, 우리말 사전에는 영어 원문으로 checker라고 한다고 발명해 놓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체스'는 몰라도 '첵커즈'란 서양놀이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데다가 '첵커즈'와 '첵커'는 전혀 다른 영어 낱말들이다. 이는 작은 영어사전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처럼 우리가 생활에서나 학술적으로나 전혀 쓰는 것 같지 않는 수천 영어 낱말이 우리말 사전에 올라 있을 뿐 아니라, 그 중 더러는 기이한 창작적 설명까지 붙어 있어서 안스럽다.

이제는 우리말의 실체를 정확히 조사해서 우리말 사전을 만들어야 할 때인데, 그 가운데에서 발견되는 외래어에 대해서도 좀 정확히 알아보고 다루어졌다. 수록 어휘의 분량 늘리기가 사전을 크게 만드는 유일무이한 방법이던 시대는 빨리 휘어! 가거라. ❖